목종 스님(부산 대광명사 주지)
傳法은 세상을 밝히는 큰 빛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8월 12일) · 주간

제1063호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하다.

"원폭, 아픈 역사 반복돼선 안된다"

한중일불교도대회 13~17일 히로시마서 개최

한중일 3국 불교계가 제2차 세계대전 정전 70년을 맞아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와 일중한국제불교협의회, 중국불교협회는 9월 13일부터 17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쟁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의 불교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9월 15일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각국 불교 대표단은 예불 의식을 올리고 원폭 사몰자 위령비와 원폭 공양탑, 한인 희생자 위령비를 차례로 돌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세계평화기원문을 통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피폭자 10명 중 1명은 징용된 '조선인'이었고 그 수는 7만 명에 달한다. 당사자와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한일 정부로부터 소외된 채 힘든 삶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히로시마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탐진치 삼독이 중생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절실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를 주관한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회장인 이토 유이신 스님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공생 · 화합의 세계를 원하는 불자들이 비인도적인 핵무기 사용을 근절하고, 어떠한 폭력도 부정하는 석가모니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3국 불교계의 황금 연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이에 앞서 종단협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인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자체적으로 추모 위령재를 개최했다.

서장은 히로시마 총영사도 추모사를 통해 "고향 산천에 울려 퍼지던 반야심경의 염불소리를 스님들이 들려주셨다. 부디 식민지에서의 서러움 다 씻어 내리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극락세계로 발걸음을 옮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종단협 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불교도들이

평화공원서 원폭희생자 추모
'희생자 특별법' 성안 발원
포교 · 수행 정진 다짐 선언
내년 대회, 4월 북경서 개최

상호 유대를 확인하고 현대와 미래 사회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서원하고 △불교도로서 다시금 기도를 소중히 생각할 것 △중생 포교에 대한 자세 재점검할 것 △다른 종교와의 대화 적극 실천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 스님,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초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밍셩 스님이 차기 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제1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2016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며,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예비회의를 통해 대회 기간과 장소, 주제 등을 결정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8회 한중일불교도대회가 9월 13~17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다. 사진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중일 3국 불교도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금강신문〉

서울에 우뚝 선 세계 최대 약사불

서울 강남에 초대형 약사여래불이 들어섰다. 대표적인 도심포교도량 능인선원은 9월 13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5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30주년 기념법회와 서울약사대불 건립식을 봉행했다. 이날 세워진 서울약사대불은 38미터의 8층 건물 높이 규모로 100톤 가량의 청동이 사용됐다. 〈관련 기사 5면〉

사진=노덕현 기자

'정치적 멸빈자' 사면 공청회 열린다

조계종 종헌 특위, 9차 회의서 일정 확정

10월 16일, 종회 주최로
분규사 · 사면필요성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가 '종단 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9월16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가 '종단 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안'을 검토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당초 3개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 의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통합종단 이후 종단분규의 역사와 징계자 현황 △종단 화합조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종헌특위는 종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종단 안팎에서 관심이 높은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원로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재가단체 등 10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내년 WFB 총회 유치 '쾌거'

WFB 이사회서 결의
내년 10월 경 개최
세계불교대학회의 등
부대행사 함께 열려

세계불교도우의회(회장 판 와나메티)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태국서 열린 제85차 WFB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WFB 총회 개최지로 진각종을 선정했다.

진각종이 2016년 제28차 WFB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를 유치키로 결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불교도우의회(회장 판 와나메티 · 이하 WFB)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태국서 열린 제85차 WFB 집행이사회서 내년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를 진각종이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WFB 판 와나메티 회장은 "진각종이 개최하는 내년 총회가 성공적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유치를 위해 진각종 통리원장인 회정 정사와 회성 현정원장 등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

내년 10월경으로 예정된 총회 기간 동안 본 대회인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뿐만 아니라 제19차 세계청년불교도우의회(WFBY), 제11차 세계불교대학회의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진각종은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가 한국불교 세계화를 서원하며 1958년 태국서 열린 제5차 WFB 총회에 참석했으며, 2008년 일본서 개최된 제24차 WFB 총회부터 정식 가입했다.

한편 WFB는 1950년 5월 25일 스리랑카 콜롬보서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됐다. 상좌부, 대승, 밀교가 중심이 된 아시아, 유럽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등 27개국 대표 200여 명이 모여서 창립됐다. 상좌부가 주축이 됐고, 특히 스리랑카에서 WFB 창설과 총회를 주도했다.

WFB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서 250개의 지역센터를 두고 출재가를 초월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불교도 연합단체이다.

김주일 기자

네팔 재건 '장기프로젝트' 시작된다

지구촌공생회, 3년 간 20개 학교 건립 추진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 피해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구촌공생회가 네팔 장기재건프로젝트 실시에 나선다.

지진발생 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NGO (사)지구촌공생회는 6차 긴급구호 및 모연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본격 재건활동을 앞두고, 현지 우기 동안 실시한 교육시설 피해조사 바탕 '향후 3년간 20개 학교 건립'이란 큰 서원을 세웠다.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이하 공생회)는 9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너진 네팔을 위한 3년간 약속-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간 긴급구호활동을 벌인 신두팔촉 지역에 2016년부터 3년 간 산골학교 20개를 건립뿐 아니라 도서관 · 책상 · 캐비닛 · 학용품 등 기자재 지원 계획도 포함돼 있다.

네팔 지진 피해로 인해 현재까지 약 8천 7백여 명이 사망하고 2만 3천여 명 부상자가 발생했다. 학교 피해도 심각하다. 총 7천 8백여 학교서 3만 6천여 교실이 붕괴됐으며, 특히 최대피해지역인 신두팔촉 지역은 6백 23개 학교 5,166개 교실 중 89%가 파손돼 사용 불가한 상태다.

공생회는 "5월 31일 각 지역 학교서 공식 수업을 재개했지만 최소 96만 명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실정이다. 산간지역 아이들은 카트만두 등에 위치한 학교에 가기 위해 마을을 떠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면 아동착취, 인신매매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학교 건립 및 보수 외에 기자재도 함께 지원해 붕괴된 교육 인프라 재건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립될 학교는 마을회관으로도 겸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생회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및 주민들을 위한 교육 · 보건 · 문화 공간으로써 종교와 전통문화 보존 및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하고 있다.

네팔 바그마티구와 신두팔촉-3지역에 지어질 20개교는 학교당 5칸씩 약 45평 이내 규모로써 약 5천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총 10억의 대규모 예산으로 불교계 안팎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이사장 월주 스님은 사무총장 덕림 스님이 대독한 호소문을 통해 "화엄경에 '애민중생여적자(愛民衆生如赤子)'란 말이 있다. 중생을 돌볼 때는 갓난아기처럼 살뜰히 돌보고, 고통 받고 소외된 자부터 살피란 뜻"이라며 "네팔 강진 피해도 안타깝지만 회복할 힘과 의지가 부족한 것에 더 큰 아픔을 느낀다. 더 많은 불자와 후원자들의 관심으로 네팔 산골학교를 다시 일으켜주기를 간절히 서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생회는 2008년 네팔지부를 설립하고 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운영 등 교육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 네팔 룸비니 지역에 스리아다샤 송명례초교, 스리마하락시미초교, 스리파슈파티 영화초교, 스리칼리마이 선원사초교와 다딩 지역 스리시데슐 공립학교를 건립한 바 있으며, 보우더지역에는 빈곤지역 아동 방과후수업 및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한 '공생 청소년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